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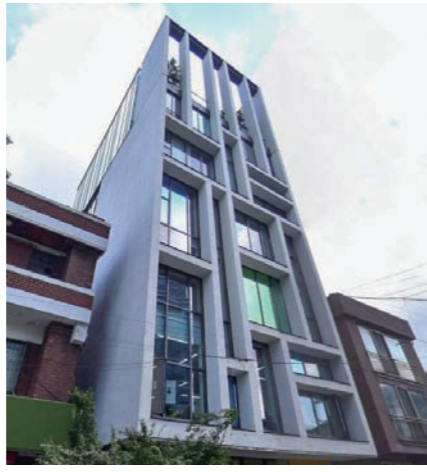
# 하지원 영화 '비광' 원앙부부 열연 개봉박두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변함없는 '동안미모'를 자랑하는 하지원(본명 전혜림)은 1996년 드라마 '신세대 보고서' 어른들을 몰라요'에서 배우로 첫 발을 내디뎠다. 1999~2000년 방영된 드라마 '학교2'에서 독기 가득한 방황 청소년 장세진 역을 완벽히 소화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2000년 영화 '진실게임' '동감' '가위' 3편이 연달아 개봉해 스크린에서도 이름 석자를 알렸다. '진실게임'으로 대종상 신인여우상을, '동감'으로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스타가 됐다.

기존 연기 스타일에서 벗어나 공포 장르에도 도전했다. '가위'에 이어 2002년 영화 '폰'의 연이은 흥행 성공으로 '호러 퀸'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2002년에는 유재균 감독이 연출한 코미디 영화 '책사공'에 출연해 도도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대학생



이은효 역을 연기했다. 40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배우로 거듭났으며 코미디 장르에도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았다.

유명 스타로 만들어준 드라마는 '다모'다. 여성 수사관 다모 채옥 역을 맡아 상대역인 황보윤(이서진 분)과 애절한 멜로 연기를 선보여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다모 페

인'을 양산해 그해 MBC연기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여자인기상-여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이듬해엔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정재민(조인성 분)과 강인옥(소지섭 분)과 삼각관계에 빠지는 여주인공 이수정 역으로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 SBS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등을 타며 수상 경력을 꾸준히 이어갔다.

인생작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사극 '황진이'에서도 매력이 돋보였다. 극중 화려한 비주얼과 춤, 거문고 연주 등의 퍼포먼스는 최고의 황진이라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해 생애 첫 연기대상을 수상하면서 최고의 해를 보냈다.

2007년 '책사공'의 유재균 감독과 재회해 찍은 코미디 영화 '변가의 기적'은 275만 명 관객이 찾았고 2009년에도 재난 휴먼 영화 '해운대'로 3번째 호흡을 맞췄다.

'해운대'에서 하지원은 당찬 부산 아가씨 연희 역을 맡아 부산 사투리를 선보였다. 사투리를 배우고자 두 명의 과외 선생님께 개인교습까지 받았다. 영화를 본 관객은 "부산에서 태어난 내가 보기에 사투리를 정말 잘 소화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 영화가 1132만 명을 동원하면서 천만 배우가 돼 기쁨을 더했다.

해운대 개봉 2개월 뒤에는 영화 '내 사랑 내 고향'에서 극중 루게릭병 걸린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 이지수 역을 연기해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백상예술대상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차기작은 영화 '비광'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방영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비광은 2년 전에 촬영했는데 아직 개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개봉일이 잡히기를 고대했다.

하지원 배우



해운대연기대인턴트

'비광'은 화려하게 살던 부부가 사건에 휘말려 나락으로 떨어진 뒤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가족 누아르로 하지원이 류승룡과 부부 연기를 보여준다는 소식이 관심이 높다.

하지원은 "드라마 '아파트' 방문교사 살인사건(가제)'을 준비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의문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저는 학생시 방문교사인데 경비원과 함께 사건을 추적하는 스텝"이라며 "경비원은 아직 캐스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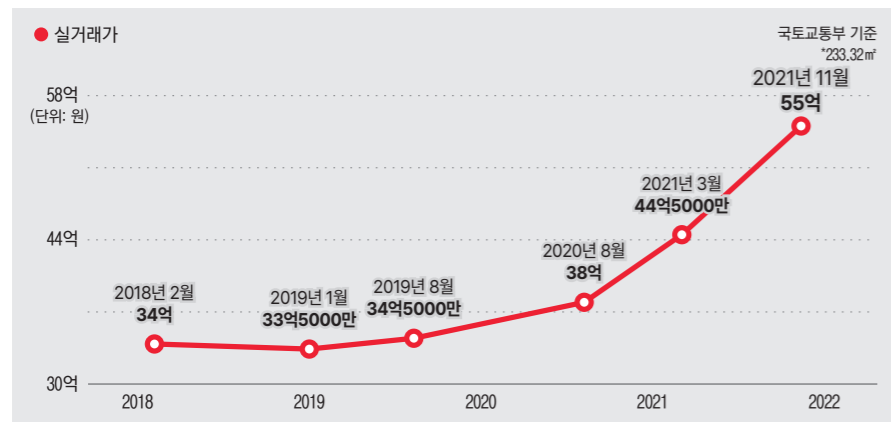
다양한 연기로 팔색조 매력을 뽐내는 하

지원이 100억 대 건물주로 알려져 관심이 높다. 그는 2020년 3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빌딩(사진) 한 동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법인 명의로 100억 원에 매입했다. 3.3㎡(1평)당 매입가는 약 1억2800만 원으로 당시 성수동 일대 빌딩 중 최고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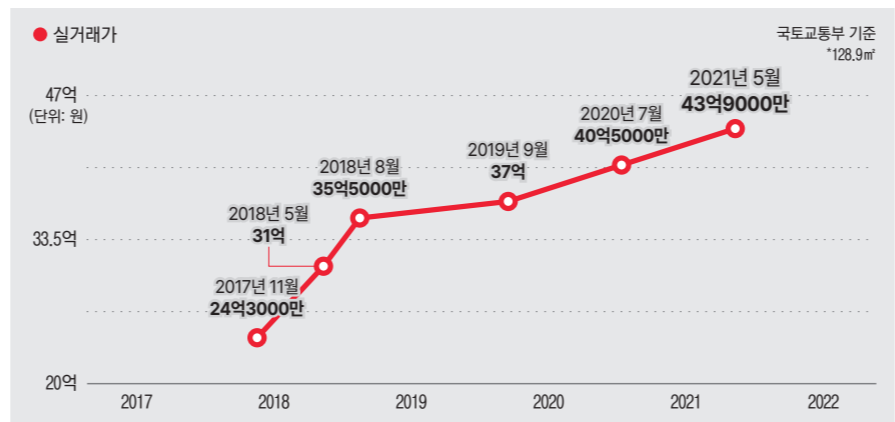
지하 1층-지상 8층, 대지면적 257.2㎡(약 77.80평), 연면적 998.35㎡(약 302평) 규모로 안경점, 복합문화공간 등이 입점해 있다.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하지원이 대표이사, 어머니가 사내이사로 있는 가족법인이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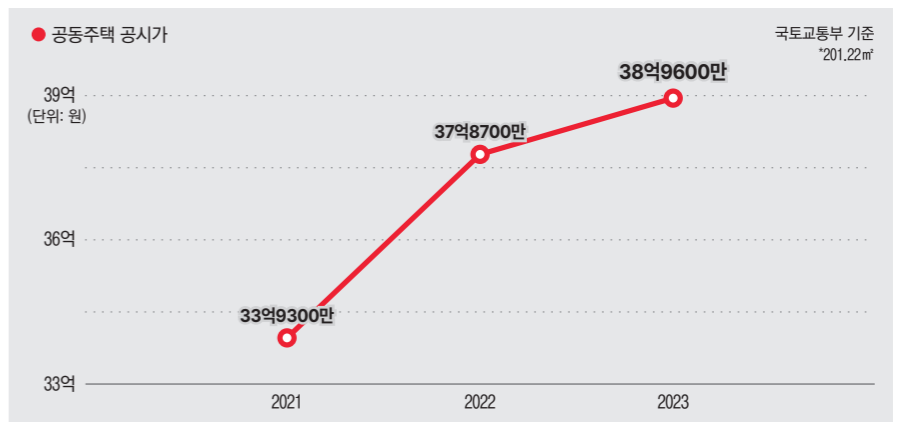
## 갤러리아포레



## 트리마제



## 아크로서울포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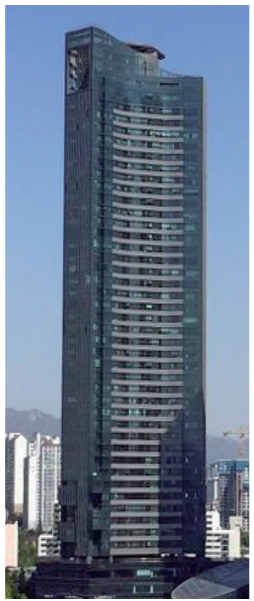


## 김경락

한화제약 대표이사 사장

김경락 한화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대일외고를 나와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엑시터대에서 마케팅을 전공했다. 2003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 입사해 영업맨으로 활동하다 부친 김남학 회장의 부름을 받아 2005년 5월 한화제약에 입사해 마케팅 생산을 담당했다. 2009년 대표에 올라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직원과의 신뢰가 최선의 가치라고 여기고 한화제약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며 일하도록 정년과 휴가 등 복지에 신경을 썼다. 아울러 김 대표는 '가족경영'과 함께 '협력경영' '미래경영' 지향한다. 상

호 중증을 바탕으로 해외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국내 협력사들과 오랜 기간 사업 동반자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2011년 중소 제약기업 최초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 이래 꾸준한 가족친화제도의 모범적 운영으로 재인증 3회를 받아 '최고기업'으로 지정됐다.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에 선정됐다.



## 한기선

전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전바움커뮤니케이션 회장

한기선 전 바움커뮤니케이션 회장은 1978년 두산인프라코어의 전신인 대우중공업에 입사해 10여 년간 중공업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하이테크진로로 합병되기 전 진로 시절인 1988년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장으로 들어가 마케팅 상무-전무-영업본부장 등을 맡았다. 1997년 소주 '참이슬'을 개발해 부도 위기에 처했던 회사를 구했다. 이후 오비맥주 부사장을 거쳐 두산주류BG사장,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두산중공업 사장 등을 지냈다. 2003년에는 과음으로 대장암 2기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한 회장은 한 언론사 인



터뷰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몸에 좋은 알칼리수로 소주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 2004년 때마침 두산 측에서 영입 제의가 들어왔고 알카리환원수 '처음처럼'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처럼'은 두산의 전구 소주 시장점유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렸다. 그는 2018년 1월 홍보전문회사 바움커뮤니케이션 회장으로 선임됐다.



## 강정선

헨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강정선은 엘레스트 대표다.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공부했다. 졸업 후 대학에서 관련 강사로 일하다 스타일 트렌드 화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스타일리스트에 발을 들였다. 이때 찍은 화보 한 컷이 표지로 선정되면서 초기부터 재능을 인정 받았다. 이후 패션지 화보 세트 제작을 비롯해 백화점 기념 디스플레이, 호텔 웨딩 스타일링 매뉴얼 등 여러 종류의 스타일링 작업에 참여하며 실력을 키웠다. 하지만 반복적인 업무에 지루함을 느껴 일을 확장하고자 아트 디렉터,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을 추가해 이어갔다. 강 스타일리스트의 작품으로는 제주 포도호텔 별관 로비 데코레이션, 핀 울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 스타일링, 대림미술관 스와로브스키 전 전시 스타일링이 있으며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인테리어도 그의 손길이 닿았다.



## 맛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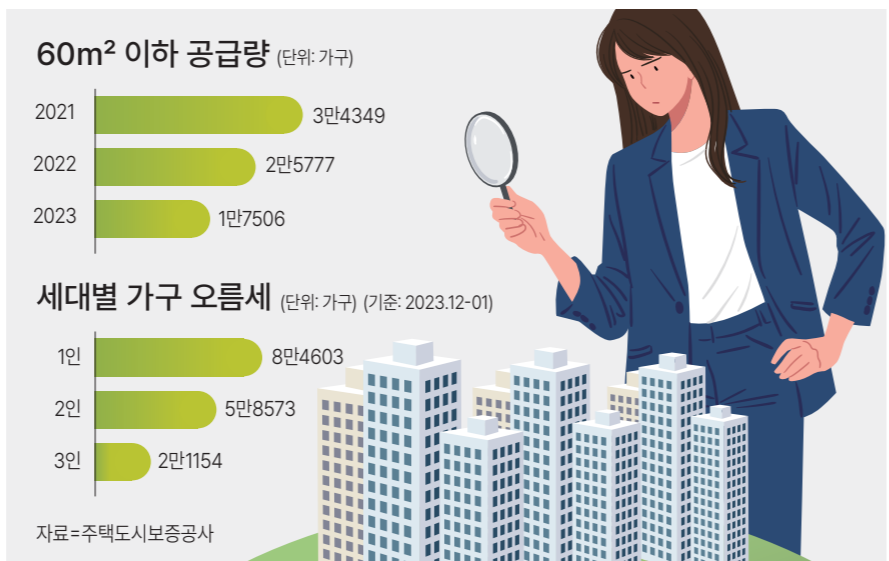
###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오르고 1~3인 가구 늘어 '소형 평형' 인기

#### 수도권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자 가격 합리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소형 평형의 인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수도권 분양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평당 분양가는 2434만41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82%(314만1600원) 올랐다. 2022년 분양가 상승률이 1.48%(31만 200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 흐름에 수도권 일부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 가격이 10억 원에 준하거나 웃돌면서 비싸다는 인식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 작년 경기 광명에서 분양한 3개 단지의 전용 84㎡는 10억~12억 원선에 공급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10월 수원시에 분양한 단지의 전용 84㎡의 분양가는 8억9000만 원대에 공급됐으며 11월 의왕시에서 분양한 단지의 전용 84㎡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으면서 소형 평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9억 원 초반대로 책정됐다. 따라서 주택 수요자들은 소형 평형에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중대형 아파트 대비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 면적별 전체 청약경쟁률은 60㎡이하 면적이

16.74대 1로 60~85㎡이하(9.69대 1)보다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계는 매년 1~3인 가구가 증가해 59㎡ 이하 평형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해 수도권 세대별 가

구는 1~3인만 오름세를 보였다. 1인 가구의 경우 46만9391가구(1월)에서 47만3994가구(12월)로 8만4603가구 증가했으며 2인 가구는 5만8573가구(268만1071가구)→273만9644가구) △3인 가구 2만1154가구(209만724가구→211만1878가구) 늘었다.

소형 아파트는 공급량이 적은 것도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부동산R114의 면적별 분양물량 자료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60㎡ 이하 아파트 공급량은 △2021년 3만4349가구 △2022년 2만5777가구 △2023년 1만7506가구로 줄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전용 84㎡는 4인 가구 기준에 적합한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소규모 가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전용 면적 59㎡ 이하 면적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최근 공급되는 평형은 시공사의 설계 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각종 특화설계가 적용된 만큼 공간활용도가 높아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 1196억 원 규모 압류재산 1099건 공매

####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196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099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제지방세 등의 체납 채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귀금속·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캠프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90건·동산 109건이 매각되며 그중 임야 등 토지가 60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67건을 포함해 총 12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귀금속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45건이나 포함될 수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열람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에 참가자가 10% 차감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